

#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가정생활교육효과\*

The Effects of Korean and Family Life Education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과  
교 수 채 옥 희\*\*  
원광대학교 대학원 가정복지정보전공 박사과정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송 복 희\*\*\*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Chae, Ock Hi

Dep. of Family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Iksan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Supper-visor: Song, Bok Hee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분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married female immigrants adjust to their lives in Korea. A total of 15 women from three different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major issues that these women faced included communication breakdowns with their husband and other family members, financial problems as well as problems with raising children in a different culture.

The findings showed that such problems were usually rooted in a lack of Korean cultural knowledge and skills. Additionally, the inaccurate use of the language by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have lived in Korea for longer than six months was

\* 본 논문은 2008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 채옥희 (chae@wku.ac.kr)

\*\*\* 교신저자 : 송복희 (youna77@hanmail.net)

often fossilized. For instance, because they usually learned the language in a local dialect, it took them longer to distinguish the dialect from standard Korean.

The results found that married female immigrants who received both Korean lessons and family life education instructions overcame their culture shock and adapted to Korean culture more easily than those who did not receive such instructions.

**Key Words :** 결혼이민자(marriage immigrant) 가정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사투리(local dialect)

## I. 서론

### 1. 연구목적

최근 국제결혼의 현실은 교제를 통하여 상호애정을 키우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보다는 짧은 교제기간과 서로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우리의 아내,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며 우리 농촌을 가꾸게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사회적 편견, 차별대우, 시부모의 학대, 남편의 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적응력이 낮다(채옥희, 홍달아기, 2006).

한국생활 적응은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주위의 차별대우, 타국생활에의 부적응 등 많은 고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정책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및 가정생활적응교육내용이 결혼이민자들의 초기 적응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박현정, 2004; 설동훈 외, 2005; 윤형숙, 2004; 이은주, 2007; 채옥희, 홍달아기, 2006.)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이 가정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겪는 문제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에 대해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여성가족부(2005)는 결혼이민자부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결혼이민자부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들에게 교육은 필요하나 1회성으로 끝나게 되므로 효과와 적응 면에서 미약함이 지적되었다.(채옥희, 2006)

2006년부터 정책적인 배려로 결혼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소할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이 전국 80여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어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을 통하여 가족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사회통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결혼이민자들이 가정방문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오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내까지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교사가 면단위로 찾아가는 “거점형”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가정생활상의 문제점,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로 교육받는 과정에서 한국어 초급반 교재와 가정생활 교육내용을 매칭시켜 한국어와 가정생활적응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얻어지는 기대와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 II. 선행연구고찰

### 1. 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 및 문화적 갈등

결혼이민자가족은 국가 간, 문화 간, 개인적 입장에서 가족 간 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족차원에서의 적응 및 다문화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는 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초기에는 중국(조선족 포함)여성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도 결혼이민자는 총 110,362명으로 2006년도 93,786명보다 17.7%증가했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63,203명 57%, 베트남이 21,614명 19.6%, 일본이 5,823명 5.3%, 필리핀이 5,033명 4.6%인 것으로 집계됐다(경향뉴스, 2008년 1월 13일).

최근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38,491건으로 2000년의 12,31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8)

한국에 결혼해온 결혼이민자가 15만 명에 이르는 현실점에서 그들이 어떠한 결혼과정을 거쳐 어떠한 동기로 결혼해왔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으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족을 도우려는 동기를 가진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결정하였고, 한국남성들도 자신에게 선택받은 여성은 자신의 기대를 채워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선택하는 남성과 선택받은 여성의 입장이라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출발한다. (김상임, 2005)

국제결혼의 과정은 아는 사람소개(49.3%), 직접만남(16.1%), 종교단체(15.6%), 결혼중매기관(13.4%)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중매업체를 통한 상업화된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전복, 중

남RHRD센터, 2006)이다.

결혼을 위해 돈을 지불한 경우는 결혼중매업체를 통한 경우(94%)가 대부분이고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도 절반정도가 돈을 지불하였다. (설동훈외 5인, 2005)

결혼 경로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소개를 통해 만난 경우는 크게 한국계 중국인 및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최근에 결혼한 베트남여성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20대 중반 30대 나이에 7~13세 위의 남편과 베트남 여성의 경우는 19세~20대 초의 나이에 자신보다 16살~22살 위의 남성과 결혼했으며 평균 18.5세의 차이가 있다. (채옥희, 홍달아기, 2007)

지금까지의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활실태와 생활문제의 규명에 집중되어 있다. 생활문제에 대해 양적 방법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주로 전국규모나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일부 연구들은 생활문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가족부, 2005; 김오남, 2006; 왕한석외 2인, 2007)

한편 질적인 연구들은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 및 적응 사례를 다루고 있다.(한건수, 2006; 채옥희, 홍달아기, 2007; 최금해, 2005; 한국염, 2004; 양철호외, 2004)

이러한 연구에서 밝혀진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생활문제는 남편을 비롯한 가족과의 갈등, 언어장벽, 경제적 어려움, 문화차이, 자녀교육, 편견 및 차별, 외로움 등으로 집약된다. 결혼이민자가족의 공통문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장애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남편들은 부인나라의 문화나 말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결혼이민자인 부인들에게만 한국어를 못한다고 불만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어려움 중 가장 으뜸가는 것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김상임(2004)은 결혼이민자를 상담한 결과 남편들이 낯선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부인의 어려움을 현실적인 삶에서 배려하지 않아 부부 갈등을 느끼며,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등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들에게 경제적인 요인이 불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남성과 결혼에 대한 'Korean dream'을 안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국땅에서의 결혼생활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시부모와 가족 간의 갈등, 문화적 차이와 차별, 경제적 빈곤, 높은 스트레스,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인한 빚, 자국송금에 대한 부담, 경제활동의 기회부재의 어려움이 있다. 소득과 경제력은 결혼이민자의 부부 갈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오남, 2006)

결혼이민자들이 처음 한국에 입국하여 새로운 환경과 처음 만나는 가족에 자신을 적응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환대나 남편의 자상한 태도는 가장 큰 지지체계일 것이다. 언어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렵기 때문에 부부간 상호이해와 친밀감의 교류는 다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부부문제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한다. (윤형숙, 2004: 채옥희, 홍달아기, 2006)

결혼이민자 다수가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시댁의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전통적 의무를 강요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윤형숙, 2004: 김오남, 2006)

결혼이민자들이 힘들어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시부모와의 갈등을 다수의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윤형숙, 2004: 박정숙외 2인, 2007)

한편 시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의 언어교육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의사소통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연구에서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시댁식구들이 도움을 준다고 하여 가족의 도움과 지지 하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달아기, 채옥희, 2006)

한편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자신이나 본국의 가족이 국제결혼을 결정하는데 배경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남편과 시댁의 경제력이 기대했던 것보다 어렵고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채옥희 외 4인, 2006) 그러나 농촌에서는 비교적 큰 농사를 짓고 집을 새로 지은 경우나 모국에 비해 농기계도 좋고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는 사례에서는 남편의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에 대해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건수, 2006)

김오남(2005)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48.9%, 150만원 이하까지 포함한다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가정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결혼이민자와 결혼한 남성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일정한 직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결혼으로 인한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채옥희, 홍달아기(2006)는 베트남여성에게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총체적으로 한국어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큰소리치는 것으로 들리는 남편의 대화방식에서 오는 문화적인 갈등과 외로움, 시부모나 남편의 학대 등이 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생활에 정착하기도전에 임신·출산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문제는 국내생활적응에서 몇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는데, 첫째 한국어능력부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경제적인 것들이다.

## 2.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가정생활 교육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과 지원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통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언어는 결혼이민자가 배우고 익혀야 할 한나라의 문화인 동시에 이들의 생존수단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은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습득이 부족한 채로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한국어는 결혼이민자에게 일차적인 사회집단인 가정생활을 원만히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 부족한 한국어능력은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켜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회생활에서 결혼이민자의 자신감을 결여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8)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특정맥락이나 상황에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도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고 한국어로 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08)

이상과 같은 한국어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은 필수프로그램으로서 한국어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한국문화의 이해는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조기정착을 도와주는 필수도구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와 가정생활을 교육하는 장소나 교육방법적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서비스교육”실시결과 마을 주민에게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불어 사는 주민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한국어강사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친정어머니 멘토(mentor)의 역할을 하고 결혼이민자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원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이 향상되었다. (채옥희, 홍달야기, 2006)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원하는 한국어교육의 지원형태는 공공건물에 모여 집단으로 지도하는 형태를 선호하였다. 원하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주변에 개설되지 않아, 자녀를 돌봐야 하므로 집을 비울 수 없어서, 생활이 바빠서, 돈이 없어서,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 원하지 않아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전라북도, 2005)

홍달야기 등(2006)의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원하는 것 중 한국어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배울 곳이 적절치 않거나 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에서는 첫째가 한국어교육이고 다음이 정보화교육, 한국요리강습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2007)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한국생활 초기적응단계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이 필수이고 적응단계에는 아이들의 어머니

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취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화교육은 국내 취업상황이 요구하는 수준이 기본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능력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결혼이민자가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며 원만한 사회생활 및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사회향상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가정생활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한국어 및 가정생활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채옥희 외 2인, 2006)

‘익산은 도·농 통합지역으로서 소도시이면서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가구가 많은 농업 지역이다. 농촌은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받기위해서 시내까지 나오려면 1-2시간이상 걸리며 버스노선시간도 1일에 1-2회 정도이다. 언어소통이 어려워 혼자 버스를 타고 외출하는 것이 어렵다. 한편 남편과 가족들의 불신으로 멀리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 가정상황에서 긴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는 것이 어렵다.

결혼이민자를 위해 교육 강사가 거주 지역을 방문하여 한국어와 생활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내용으로 문화와 한국어를 동시에 학습하게 한다. 결혼이민자 교육 중에는 탁아도우미를 채용함으로써 영유아를 둔 결혼이민자들의 참여를 높인다. 결혼이민자의 가족(남편과 시부모)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한다.(예, 집단상담, 가족한마당화합잔치 등)

이와 같은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으로 수행된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합교육 실시 중에서 결혼이민자의 요구에 기초한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방법과 과정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효과와 효

율성을 평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어교육과 가정생활교육만을 초점으로 그 효과를 파악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내용 및 세부계획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된 주 교재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초급교재(2006)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수행하면서 가정생활 및 사회교육을 실시하기위해서 채옥희·홍달아기(2006), 여성가족부(2006) 가족생활교육에서 활용된 가정생활 및 사회적응 관련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교육 운영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장소는 각 지역(면단위)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였으며 교육 팀은 주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탁아도우미 2명, 총 4명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어와 가정생활교육 일정은 2006년 3월에서 2007년 2월까지 주 2회 3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실시 전 한국어교재 초급단원에 맞는 가정생활적응교육 내용을 접목하여 수업계획안을 작성하였다.

#### 2. 조사 방법

조사대상은 K면 외 2개 지역주민자치센터에서 23명을 대상으로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3회 이루어졌으나 중도탈락자 8명을 제외한 15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면접은 초기면접과 교육 6개월과 1년 후에 한국어수준 향상평가를 실시하였다. 초기면접에서는 한국어말하기, 듣기, 쓰기능력을 측정하였다.

한국어와 가정생활적응교육은 1년 동안 48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국적	나이(세)		직업		학력		자녀		결혼 과정	시부모 동거	입국 년,월	행사 참여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남	여				
1	베트남	30	43	주부	농업	고졸	고졸	3세	없음	친구소개	동거	04,03	6회
2	베트남	25	41	공장	회사	고졸	고졸	자녀	없음	중매업체	시부	05,09	6회
3	베트남	24	36	주부	무직	중졸	고졸	자녀	없음	중매업체	시모	04,12	6회
4	베트남	22	39	주부	농업	고졸	고졸	임신중		중매업체	동거	06,05	5회
5	베트남	23	40	공장	무직	고졸	고졸	없음	2세	중매업체	동거	04,11	4회
6	베트남	27	52	주부	농업	고졸	중졸	1세	없음	중매업체	동거	05,12	2회
7	베트남	24	41	주부	공장	중졸	고졸	1세	없음	중매업체	시모	05,08,	5회
8	베트남	23	46	주부	회사	초졸	고졸	자녀	없음	중매업체	시모	06,01	6회
9	몽골	28	40	주부	노동	대중퇴	고졸	자녀	없음	중매업체	비동거	06,04	6회
10	베트남	25	43	주부	농업	고졸	고졸	1세	없음	중매업체	동거	05,01	6회
11	베트남	25	40	주부	기사	초졸	고졸	없음	1세	중매업체	시모	05,07	4회
12	베트남	21	35	통역	농업	중졸	고졸	임신 중		중매업체	시모	06,05	6회
13	베트남	24	45	주부	농업	초졸	중졸	임신 중		중매업체	시모	06,01	2회
14	베트남	24	40	통역	기사	고졸	중졸	2세	없음	사촌소개	시모	04,12	6회
15	중국	30	45	주부	기사	고졸	고졸	2세	1세	지인소개	동거	04,03	6회

주: 행사참여는 주로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행사로 ‘행복 나눔 운동회,’ ‘의, 식, 주 생활문화체험’, 김장 체험, 다문화사랑축제(학예발표회) 및 친정어머니 멘토와 10회의 한국요리를 기준으로 하였다.

주 96회기로 총300시간 이루어졌다. 한국어교육은 한글 기초와 초급교재를 1년 동안 48주 82회기를 2시간씩 164시간 실시하면서 주별로 가정생활적응교육과 병행하였다. 가정생활교육 82회기 중 의·식·주 생활문화 교육은 27회기, 가족생활교육 23회기, 지역사회 적응교육 13회기, 전통예절 14회기, 건강관리(임신과 출산) 5회기이다. 요리 10회기 3시간씩 30시간과 다문화가족행사 4시간 문화체험과 가족캠프 16시간 이다. 의·식·주 생활문화교육내용은 의·식·주생활에 주안점을 두어 의생활 10회기, 식생활 12회기, 주생활 5회기로 이루어졌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15명의 결혼이민자들을 1년 동안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횡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들은 본 조사자에게 수업을 받은 결혼이민자들로서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기간은 12개월이었으며 (2006, 3 ~ 2007, 2월) 이 기간 동안 조사자는 매주 2회 6시간에 걸쳐 300여 시간 한국어와 가정생활 및 문화적응교육을 병행하였다.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은 베트남 여성이 13명(86%), 중국 여성 1명(7%), 몽골 여성 1명(7%) 으로 베트남여성이 가장 많았다. 입국 년 월은 아래 <표 7>에 나타난 것처럼 2004년 5명, 2005년 4명, 2006년 6명으로 3년 동안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대 중퇴 1명, 고졸 8명, 중졸 3명, 초졸 3명이며, 결혼이민자의 평균나이는 23.4세이며 부부의 평균 나이 차이는 18.3세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농업이 6명으로 가장 많고, 공단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2명 기술직 3명, 운전기사 1명, 자영업 1명, 단순노동1명, 무직이 1명으로 나타났다.

#### IV. 결과 및 분석

##### 1. 결혼이민자의 한국어수준과 가정생활의 문제

한국어와 가정생활교육 시작 전 초기면접을 통해 한국어수준을 파악하기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년도월일 별로 좌석배치를 하였다. 그 결과 결혼해온지 2-3일 만에 한국어수업에 나온 사례4, 7, 9가 있으며, 2개월-3개월 된 사례6, 8, 12, 6-8개월인 사례2, 11, 13,이다. 12개월에서 15개월 된 사례3, 5, 10, 14와 24개월 된 사례1과 15로 분류되었다. 이들을 6개월, 7개월에서 12개월 이내, 13개월 이상의 3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한국어수준이나 가정생활문제를 파악하였다.

##### 1) 한국생활 6개월 이하인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사례 4>는 한국에 온 다음날부터 한국어 수업을 받게 되었다. 한국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읽기, 쓰기, 말하기가 전혀 불가능하여 단어카드나 그림을 이용한 대화도 불가능했기에 통역을 통하여 초기면접을 하였다. 남편이 한국어교육에 매일 데리고 왔는데 매일 아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곤 했다.

<사례 7> 베트남에서 부인이 한국입국비자를 받지 못해서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으니 비자인터뷰 내용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왔다. 한국어초급 교재와 최근에 입국한 결혼이민자 남편을 소개해주어 입국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부인의 한국어 수준은 초보이었다.

<사례 9> 한국에 온지 일주일 만에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였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참여시켰으며 본인은 수동적인 자세로 한국어교육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글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ㄱ, ㄴ, ㄷ부터 발음하기를 시작하였다. 몽골 인으로 통역이 없어서 사전을 찾아가며 대화를 하였다.

<사례 6> 결혼 한지 3개월이 되었으나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출을 별로 하지 않고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주로 하고 있다. 언제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보였다. 한국어능력은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며 통역을 통하여 베트남어로 묻는 말에 베트남어로 대답하였다. <사례 8> 결혼한 지 3개월이 되었으나 말이 별로 없는 성격으로 결혼 직후 불안한 증세를 보이며 방안에서 혼자 문을 잠그고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을 거부하였다. 면접 시 할 수 있는 말은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말 할 수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힘들어하며 베트남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사례 12> 결혼 후 2개월이 지나서 한국어교육에 참여하였다. 한국어에 대하여 교육받은 적이 전혀 없었지만 3개월 이상 공부한 결혼이민자보다 말을 좀 알아듣는 것 같았으나 쓰기는 하지 못하였다. 성격이 활발하고 씩씩해서인지 가족관계도 원만하여 남편과 시동생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이웃 남성들에게도 “ 오빠사랑해요”라는 말을 아무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위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에 도착한지 1개월 미만인 결혼이민자들의 한글은 ㄱ, ㄴ도 못하는 수준이므로 한국어첫걸부터 시작하였다. 한국어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등 5문장이하이다.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들은 초기에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을수록 이들의 결혼생활은 빠르게 안정되지만 부정적인 경험은 이미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불안과 경직을 불러일으킨다는(박정숙 외 2인, 2007) 연구와 일치하는 것처럼 이들은 문화적인 충격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기도하고 우울하며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답답하여 친정으로 보내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성격이 명랑하고 활달하기도하지만 남편이나 시댁가족이 지지기반이 되어 쉽게 적응하는 경우도 있다.

## 2) 한국생활 7개월-12개월 이하인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및 가정생활

<사례 2> 한국에 온지 7개월이 되었으며, 듣기와 말하기는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쓰이는 말로 ‘밥먹어’, ‘알아요’ 정도를 구사하고 있으며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고 단어사용이 잘되지 않고 있다. 조사와 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없다. 집에서 시아버지와 둘이서 하루종일 지내기 때문에 대화상대가 없어서 말하기가 부족한 것 같다. <사례 11> 결혼한 지 8개월이 되어 한국어를 시작하였다.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있으며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이 있으며 언제나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사례 13> 결혼 후 6개월 만에 한국어교육에 참여하였다.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모든 시중을 들어야하며 자신을 구박한다고 하였다. 임신 중인데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해서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잘하지 못하는 한국말을 하는데 거의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다.

위의 사례들처럼 6개월이 지나도 한국어교육이나 가정생활교육을 받지 않으면 각자의 다

른 문화로 인하여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것 같다.

## 3) 한국생활 13개월-24개월인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및 가정생활

<사례 3> 한국생활을 시작한지 15개월이 되었으며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읽기, 쓰기가 전혀 안되며 말하기도 입속에서 우물쭈물 하여 알아듣기가 힘들다.

<사례 5> 결혼생활 1년 4개월 된 이민자로 5개월 된 딸이 있다. 아기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였으나 잘 모르고 지내고 있었다. 남편은 철모르는 아내와 잦은 불화로 언제나 이혼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 10> 온순한 성격으로 시부모님 뜻에 잘 따르고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하며 한국에 온지 1년이 지나서야 한국어교육에 참여하였다. 1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듣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사투리와 같은 말들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으며 쓰기는 기초수준으로 글자를 쓰는 순서와 정확한 발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사례 14> 한국에 온지 1년3개월이 되어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리하고 예의가 바르며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사촌의 소개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을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선생님이며 시어머니를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하는 편이다.

<사례 1> 2년 전에 한국에 시집왔으나 가끔 교회에 다니면서 한국어공부를 하였다고 하지만 한글은 전혀 쓰는 방법을 모르고 말하기 수준은 기초단계로 발음에 문제가 심각하여 ‘딸’을 ‘달’로 발음하고 ‘쌀국수’는 ‘살국수’로 발음하고 있으며 조사 사용이 되지 않고 있었다.

<사례 15>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으며 조신족으로 한국말은 잘하는 편이나 사투리를 많이

〈표 2〉 집단관찰결과

개월	집단 관찰 결과
<p>1개월 (1주~4주)</p>	<p>2개면에서 23명이 모여서 개회식을 하였다. 한국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말하기, 듣기, 쓰기 테스트를 하였다. 말하기 수준은 “오빠” “사랑해” 같은 짧은 단어로 표현하는 정도이며 듣는 태도는 대부분 호감을 가지고 듣는 태도였으나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말이 아닌 것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쓰기평가는 주로 단어쓰기를 하였는데 10문제 중 1명만이 2~3문제정도 맞았으며 나머지는 한문제도 맞추지 못했다. 이들은 한국어교육을 한 번도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처음 1개월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를 주로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익히도록 하였다. 말은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70%정도는 알아듣지 못하여서 원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고 또는 사진을 찾으면서 약간의 대화를 할 수 있었다.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의 표정은 불안하고 어두워보였다.</p>
<p>2개월 (5주~8주)</p>	<p>1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어공부가 끝나고 인사말과 가족소개하기 공부를 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하기 시작했다.(“남편 좋아요” “시어머니 나빠요”) 등 쓰기 공부에서 확신을 많이 흔들고 있었다. 친정가족의 사진을 보면서 친정어머니 아버지를 소개할 때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요리 첫 시간으로 비빔밥 실습을 하였는데 배우 즐거워하며 집에서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비빔밥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요리 실습시간에는 모두들 열심히 배우려는 태도를 보였다.</p>
<p>3개월 (9주~12주)</p>	<p>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와서 각 지역에서 한국어공부를 하는 사람은 30여명이 되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결석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1과~5과까지 1차 쓰기평가에서는 그동안 배운 단어와 문장을 중심으로 20문제를 평가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결혼이민자들은 10문제~11문제를 맞은 반면 결석을 자주하고 노력하지 않는 결혼이민자들은 2~3문제 정도 맞은 사람도 있다. 사과 깎는 법을 배운 후에는 사과를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선생님 드세요”라고 공손하게 존댓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혼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고 자랑도 하게 되었다. 2회 요리실습 시간에는 김밥을 싸가지고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겠다고 모두들 싸가지고 갔다. 어버이날이 되어 카네이션 꽃을 만들고 모두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선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다.</p>
<p>4개월 (13주~16주)</p>	<p>수업시간을 잘 안 지키던 사람들이 약속시간 정하고 지키기에 대하여 공부한 후 수업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TV편성표를 보면서 좋아하는 드라마 이름을 말하며 주인공에 대한 느낌도 말했다. 20% 정도가 TV를 통해 말하기와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말을 할 줄 알게 되어 “선생님 생일은 언제예요?” 라고 질문도 하게 되었다. 일과표작성을 통해 본 결혼이민자들의 하루일과는 대부분 7시에 일어나며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은 50%정도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밥은 시어머니가 하였으며 빨래와 청소는 결혼이민자들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자신들이 반찬을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사람은 남편에게서 김치찌개 끓이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있는 친구를 부러워하며 요리를 배울 사람이 없어서 TV를 통해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 저녁시간에는 주로 부부가 함께 TV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요리실습에서 배운 솜씨로 김밥을 만들어오기도 하였다.</p>

〈표 2〉 계속

개월	집단 관찰 결과
5개월 (17주~20주)	<p>2회 평가에서의 읽기평가는 발음이 약간씩 교정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틀린 발음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쓰기 평가에서는 문장으로 30문제를 평가 한 결과 30%만이 15문제를 정확하게 쓸 수 있었다. 1회 평가와 비교하면 약간의 발전이 있었다.</p> <p>가정생활문화교육으로는 한국의 풍습과 민속놀이그림으로 만들어진 게임카드(원광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고안)로 경제게임 놀이를 실시했는데 한국가정생활문화에 흥미를 가지며 관심을 표현했다. 한국어교실에 며느리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가족들도 한마디도 못하던 아내가 제법 잘 알아듣고 말을 한다고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가족”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할 때는 자신의 가정생활과 부모형제 이야기, 자신이 친정에서 살아온 이야기 등을 서투른 한국말로 표현했다. 그동안 닫혀진 마음을 여는듯했다.</p>
6개월 (21주~24주)	<p>“선생님 옷, 빨간색이 너무 예뻐요”라고 표현할 줄 알게 되었다. 친구가 한국어공부에 오지 못하면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선생님 보고 싶어요” 라고 전화가 걸려온다. 6개월이 되면서 말하기와 듣기실력이 많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p> <p>일기쓰기지도를 통해 쓰기 교육을 시키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 두 줄씩 쓰기 시작했다.</p> <p>다음의 일기내용에서 시어머니가 여행 가신 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일기내용에서 맞춤법은 몇 군데 수정하였음)</p> <p>“시어머니가 여행을 가셨는데 혼자 아침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더 잘해드려야겠다. 어머니는 나에게 선생님이다.”</p> <p>생일날에는 “선생님 생신 축하 드려요”라고 쓴 카드와 선물을 받았다.</p> <p>우리나라문화에 많이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p> <p>한국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가정생활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p>
7개월 (25주~28주)	<p>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 가족들과 같이 오던 결혼이민자들이 교통비를 지불하고 시내버스를 타 보는 수업을 받은 후에 혼자서 한국어공부를 하러 올 수 있게 되었다. 데려다주던 가족들이 바쁘면 결석을 해야 하는데 결혼이민자들도 혼자서 올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출석률을 높일 수 있었다.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만들기 요리실습을 하였는데 서로 협력하며 송편을 빚는 모습에서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p> <p>1박2일로 다녀온 의·식·주 생활문화체험에는 버스 2대에 모두 30가족 80명이 참여하여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가족들이 남원광한루에서 도령밥상, 춘향밥상으로 식생활체험과 이 도령과 성 춘향의 사랑경험을 통해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전주한옥마을에서 주생활체험을 한 후 부부교육, 남편교육, 시어머니교육이 이루어졌다</p> <p>생활문화체험을 다녀온 남편들과 시어머니들은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p>
8개월 (29주~32주)	<p>“선생님 목 아파요, 어떤 병원가야해요?” 전화기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기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p> <p>11과~15과까지 3회 평가의 읽기평가는 ㄹ발음이나 ㄱ발음에 문제를 보였으며 정확한 발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0%정도로 발음을 고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쓰기평가에서는 30문장의 받아쓰기 문제 중 45%이상이 15문제를 맞추었다.</p> <p>이 결과에서 말하기 능력에 비해 쓰기능력은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조금씩 향상 되는 것을 알 수 있다.</p> <p>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복나눔 운동회에 2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p>

(표 2) 계속

개월	집단 관찰 결과
9개월 (33주~36주)	<p>점점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어 수업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청첩장을 보내오면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 결혼” 이라고 쓴 축의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축하해 주는 모습에서 이들이 점점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장에서 비어있는 친정 부모님의 자리를 결혼이민자들인 친구들끼리 채워주는 애뜻한 마음들이 느껴졌다. 마음을 말로서 글로서 조금씩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꾸준한 일기쓰기지도를 통해 쓰기능력이 향상되어 YWCA에서 주최하는 편지쓰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결과를 가져왔다.</p>
10개월 (37주~40주)	<p>16과~20과까지 4회 평가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 비해 읽기와 쓰기는 한국어수업에 참여하는 횟수와 자신이 노력하는 태도에 따라 개인차를 보이기 시작 했다. 말하기에서는 80%정도가 정확한 “조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였다. 쓰기 평가에서는 30개의 문장 받아쓰기를 했는데 10%가 25문제 이상을 맞았으며 30%는 10문제를 넘지 못했다. 요리시간에는 다문화 음식 콘테스트를 열었다. 다른 나라의 음식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즐기는 계기가 되었다. 배추 300포기 김장을 하였는데 중국에서 온 조선족인 L이 앞에서 지휘를 하였다. 모두들 잘 따라서 많은 김치를 빠른 시간에 담글 수 있었다. 집에서 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나타내었다.</p>
11개월 (41주~44주)	<p>재래시장, 마트 등을 다니면서 실제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면서 시장경제 및 실물경제에 대하여 알게 하며 돈의 중요성도 일깨워주었다. 마트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는 태도에서 많은 자신감을 발견했다. 시장보기는 가족들의 저녁에 사용될 반찬거리를 구매하도록 하였는데 재래시장에서는 “비싸요, 싸게 주세요.” 라고 말하며 물건을 깎기도 했다. 다문화사랑 축제를 통해 그동안 공부해온 발표회를 가졌다. K면, M면, H면 그리고 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자들이 가족들을 모셔놓고 4팀으로 장기자랑, 한국무용, 러시아무용, 영상편지 낭독, 동시낭독, 연극, 구연동화 등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어 및 가정생활적응교육에 참여한 80여명이 모두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한국말로 쓴 편지를 낭독하고 간단하게 연극도 하고 동시낭독도 하게 되었다. 능숙하지 못한 어설픈 모습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많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다.</p>
12개월 (45주~48주)	<p>예쁜 한복을 입고 큰절을 열심히 배우며 즐거워했다. 명절에는 시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고 세배를 해야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이해하고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며느리가 다 되어간다고 느꼈다. 21과~24과까지 4회 평가에서는 한국어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골든 벨 울러라! 에 참여해서 사회자의 말을 듣고 생각해서 글씨로 쓰는 게임을 통해 한국어능력을 마지막으로 평가해 보았다. 한국어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이 마지막으로 5명이 남게 되었는데 “이사할 때 신고하는 곳”을 쓰라고 하는 문제에서 한명만 남고 모두 탈락을 하여 마지막 골든 벨을 울린 사람이 컴퓨터를 탔다. 아직도 한국어를 하지만 능숙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어교육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수료식에서는 한국어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혼이민자8명에게 “가훈”을 써서 액자로 만들어 시상했다.</p>

사용하고 쓰기가 전혀 안되었다. 자매가 결혼 이민자로 언니도 한국으로 결혼하여 살고 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큰며느리로서 역할도 충실하게 하고 있으며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한국며느리 이상으로 살림을 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어 오게 되며 2년이 지났어도 한국어교육을 받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가족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가족이나 부부간에 갈등이 많다. 생활언어는 약간 소통이 되고 있으나 거의 사투리를 사용하고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거나 읽기 능력은 거의 없었다.

## 2. 관찰결과를 통해서 본 한국어와 가정생활 교육의 통합적 효과

### 1) 집단에 대한 월별 관찰결과

월별 집단관찰결과에서 학습능력 향상도를 꾸준히 점검해보는 것은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학습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결혼이민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확인하면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자극함과 동시에 자신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1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 능력도 향상되었으며 가정생활이나 사회와의 관계망도 형성되어 자신감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3개월부터였다. 6개월부터는 간단하게 일기도 쓸 수 있었고 따라서 가정생활의 문제와 갈등을 지도사가 파악이 되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가정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를 읽고 쓰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10개월부터는 취

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한국어와 가정생활통합교육으로 시도된 음식 만들기, 시장 보기 시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었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특징을 살펴보면 표준어보다 지역 방언에 익숙하다. 또한 체류기간이 오래된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한 경우가 많아서 잘못 습득된 언어 표현이 많다.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일수록 발음과 읽기, 쓰기에 관심을 보인다. 교육수준이 낮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지도하기가 더 어려웠다.

### 2) 개인별 한국어 능력과 가정생활문화 및 사회적응력 향상

개인별 한국어능력 과 가정생활문화의 향상을 살피기위해서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 단위로 관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는 2006년 3월 ~ 8월까지이며 하반기는 2006년9월-2007년2월까지이다.

#### (1) 상반기 한국어와 가정생활적응교육 후 개인별 변화

위와 같은 개인별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례 1, 2, 12, 14>는 뚜렷한 한국어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들은 비교적 가정생활도 원만하며 학력도 고졸이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였기에 현저한 한국어수준의 향상이 돋보였다

<사례 3, 5, 6, 11>은 소극적인 수업참여로 한국어에 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어수업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에 별로 뜻이 없어 보였고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재미로 한국어수업에 참여하여 약간의 향상이 있었을 뿐 별 변화는 없었다.

(표 3)

사례	한국어능력	가정생활 적응력
1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3개월 만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발음이 교정되고 있어 정확한 단어표현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에는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주말계획을 말하고 글로 표현할 줄 안다. 핸드폰으로 간단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시장보기를 혼자서 할 수 있고 일요일에 친구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놀기도 하며 전화로 대화가 가능하다. 시댁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 할 줄 알며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자신의 의견을 똑똑하게 전달한다.
2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사말 정도만을 말할 수 있었는데 말하기와 듣기에서 많은 향상을 보였다. 언제나 베트남 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국어공부를 한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새로운 단어를 사용한 문장 만들기도 가능하여 6개월째는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었다.	전화를 통한 대화가 가능하고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시아버지를 위해 한국요리를 배우고 시아버지 밥상을 차릴 줄 안다. TV요리프로그램을 통하여 김밥 싸는 법을 배웠다고 한국어교육시간에 김밥을 싸와서 나누어 먹는 너그러운도 있으나 아이가 생가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3	한국어 수업에 참여는 열심히 하나 공부에 별로 뜻이 없어 보였다. 'ㄹ'받침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기본 인사말 정도할 수 있다. 6개월 기간 동안 한국어공부로 전화걸기, 받기를 할 수 있는 정도다.	시어머니 대신 병환으로 누워계신 시할머니를 모시고 식사준비와 시중을 들어드렸다.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므로 주위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질투를 하였다.
4	한국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한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였다. 기초와 초급교재를 통한 교육으로 하루 일과를 이야기 하고 시간 묻고 답하기와 날짜 묻고 답하기를 할 수 있다. 어려운 단어사용은 잘 안됨.	한국어교육을 받지 않고 한국에 와서 의사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불만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소통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교육에 처음 왔을 때 위축된 느낌을 받았는데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긴장한 상태에서 벗어나 활발하고 명랑해졌다.
5	친구를 만나러 오는 재미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말하기의 발음이 안 좋고 문장을 만들지 못하여 단어로만 의사 표현을 하였다. 조사사용이 잘 안되고 읽기나 쓰기에서도 많이 부족하다.	남편이 재혼이라는 것을 숨기고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졌다. 남편을 무시하여 모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며 행동하였으나 “아내의 역할”수업에 참여하면서 남편과의 행동에 차츰 주의를 하였다. 2살 된 딸이 호흡이 편하지 않아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다.
6	소극적인 한국어수업 참여로 거의 달라진 점이 없었다. 표정이 어둡고 듣기만 하며 말을 거의 안하는 편이었다. 알아듣기가 가능해졌다.	시부모와의 심한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면서 힘들 때나 농사일이 없을 때만 한국어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힘든 점을 베트남 말을 통해 상담을 하여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적응해나가고 있다.
7	공부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편이어서 한국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말하기와 듣기, 쓰기수준이 꾸준히 조금씩 향상되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가족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는 편이다.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였다.
8	한국어를 전혀 접해보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다. 수줍어하고 말이 없는 편이어서 조금 더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읽기가 가능하였으며 차츰 말문을 열어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했다. 글씨도 예쁘게 잘 따라서 썼으며 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남편과의 합방을 두려워하였으나 친정어머니 멘트를 통하여 정서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가족 상담을 통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노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표 3) 계속

사례	한국어능력	가정생활 적응력
9	. 처음 카드를 가지고 발음과 단어를 익히도록 하고 노력한 결과 간단하게 전화걸기와 받기는 가능하나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모르는 것에 대하여 하나씩 질문을 하게 되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식사시간에 맞추어 밥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빨래와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였으나 가정생활교육을 통하여 점차 나아졌다.
10	한국에 온지 1년이 되었으나 조금 들을 줄 아는 데 비해 말하기, 읽기, 쓰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성실한 자세로 한국어수업을 하고 있으나 말이 없는 편이라서 말하기가 빨리 향상되지 않고 있다.	부부사이가 좋아서 행사참여에도 언제나 남편과 함께 온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농사일에도 많은 협조를 하며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
11	말이 없으며 한국어공부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가정생활에서 힘든 면이 있어 보이며 지쳐 있는 상태이다. 듣기는 가능한 편이나 말하기와 쓰기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큰아들이 아니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불만이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시누이와 형님들이 오게 되면 힘이 든다고 한다. 말이 없으며 표정도 매우 어둡다. 몸이 매우 약하며 큰아이를 출산 후 곧바로 임신이 되어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고 있다.
12	한국어교육 시작한지 2개월 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지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말하기, 쓰기에서 현저한 발전이 보였다. 처음에는“ 어머니, 선생님”등 간단한 명사 사용만 가능하였다. K면과 M면의 중간지점에 살면서 두 지역으로 한국어공부를 하러왔다. 일주일에 4회를 한국어교육에 참여하였다. 사전을 가지고 언제나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4개월 만에 간단한 글쓰기가 가능하였다.	성실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남편과 시댁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본인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형제들에게 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국어 수업에 왔다.
13	첫아이의 출산과 둘째아이 임신으로 한국어교육에 소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읽기도 많이 부족하고 말하기도 미숙하다.	고부갈등이 심하여 몹시 힘들어하였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남편에게 분가를 하도록 권유하여 옆 동네로 분가하여 생활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한국어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한국어교육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어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였으나 하우스일과 아기에게 시달려 많이 힘들어했다.
14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로 읽기, 말하기, 쓰기에서 많은 향상이 되었다. 처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었으나 발음교정을 통하여 자신감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언제나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혼자서 외출이 가능하고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자수를 하여 집안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지속적으로 자수를 하여 돈을 벌고자한다.
15	읽기와 말하기는 잘하여 대화에는 불편함이 없으나 쓰기가 전혀 안되고 글의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교육 중 읽기 쓰기지도와 동화책읽기지도를 통하여 글씨 철자법이 많이 교정되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큰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 남편과 주말부부로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와 상담으로 위기극복을 잘하였다.

수업시간에 발음을 교정하기위해 여러 번씩 반복을 하나 한국어공부에는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으며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주로 베트남 말을 많이 사용하여 이야기 하고 지각과 결석을 자주하였다. 이들은 성격도 소극적이며 학력도 낮은 편이고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않은 것 같이 보였고 항상 경직되고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사례 6, 8, 11, 13>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교육이나 배우자교육을 통하여 향상되어지고 있었다. <사례 13>도 고부갈등이 심하여 몹시 힘들어하였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남편에게 분가하도록 권유하여 옆 동네로 분가하여 생활하고 있다.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가정생활적응교육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이 가정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국어와 가정생활적응교육의 효과는 한국어교재 단원에 따른 가정생활적응교육 프로그램 외에, 각 결혼이민자들이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남편이나 시어머니 상담, 취업 조력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효과이다.

(2) 하반기 한국어와 가정생활적응교육 효과 <사례 1, 2, 4, 12, 14>는 한국어능력에서 아주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이들은 가정생활에서 의사소통에 거의 불편함이 없어졌고 교재 내용이해와 글쓰기에서 맞춤법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여 조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여 대화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교육 중간에 요리 실습시간이나 손으로 만드는 작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어교육에도 적극성을 가지며 한국어수준이 향상되었다. 편지쓰기와

일기쓰기를 통하여 글 쓰는 능력을 키우고 동화책읽기를 통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컴퓨터로 이메일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례 3, 6, 7, 9,>는 한국어능력이 서서히 향상되었다. 이들의 특성은 소극적이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성격으로 의사소통은 현저히 좋아졌으나 단어표현과 조사사용이 잘 안되었다. 꾸준한 한국어와 가정생활적응 교육 참여로 조금씩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참여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읽기나 쓰기에 향상을 보였다. 상반기수업보다 하반기에 적극적인 태도로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초급수준은 넘었으나 중급교재를 따라 하기에 약간 무리가 있다. 이들은 특히 임신하고 입덧을 하는 기간 동안 쉬는 기간이 있어 한국어능력이 퇴보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가정생활에서 <사례 4, 6, 8>은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였으나 센터와 연계된 가정생활적응 교육을 통하여 부부관계가 향상되었다.

<사례 6과 11, 13>은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가진 결혼이민자로서 시부모님 밑에서 독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한국어지도사와 상담을 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부부갈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는 한국어선생님의 가족 상담을 통하여 다시 집으로 들어와 이혼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현재 자녀가 있는 가정은 <사례 1, 5, 6, 7, 10, 11, 14, 15>의 8가정으로 모두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은 아기에게 예방접종하는 시기나 방법, 아기가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 모유나 우유를 먹이는 방법 모두를 스스로 터득하고 알아가며 한국사회에 맞게 자녀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에게 초기적응을 위한 한국어와 가정생활교육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효과가 있다. 즉 한국



(표 4) 하반기 한국어와 가정생활적응교육 후 개인별변화(2006년 8월~2007년 2월)

사례	한국어능력	가정생활적응력
1	전화통화와 문자보내기 등의 일상적인 가정생활과 의사소통에 거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조사 사용이 좀 어색한편이나 긴 문장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중급반으로 진급하였으며 교재 내용 이해와 글씨 쓰기에서 맞춤법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운전면허시험에 도전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	둘째아이를 임신하면서 약간 힘들어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다, 남편과 부부관계도 좋으며 반듯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이양육에도 매우 적극적 임, 시댁 어른들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부모님이 운전면허시험에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있다.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례이다. 부부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100%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2	한국어공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한국어 수업에 임하고 있어 많이 향상되었다, 한국어 공부에 전념하여 쓰기와 읽기부분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기쓰기와 편지쓰기에도 능숙함을 보였으며 말하기는 전화로 대화가 가능하며 전화통화하기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핸드폰의 문자보내기로 문자를 보내오기도 한다.	한국어교육 6개월 후 끝난 후 공단에 있는 스타킹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 남편이 버는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 부족하므로 돈을 벌어 땅을 사야겠다고 말했다. 주말을 활용하여 가정생활적응교육에는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어려움이 생길 때는 전화를 통하여 안부를 전하고 힘들 땐 선생님과의논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다.
3	꾸준한 한국어교육 참여로 조금씩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사와 형용사 사용을 할 줄 알게 되었으며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대화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일기쓰기와 편지로 마음을 전달 할 수 있으며 중급반에서 공부하고 있다.	불임으로 임신이 안 되어 걱정하여 모시던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산부인과에서 불임클리닉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였다. 끈질긴 노력으로 임신을 하였으며 태교의 방법으로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4	임신 후 입덧을 하여 한 달 동안 한국어공부를 쉬었다가 나왔지만 꾸준한 수업참여로 듣기와 말하기 쓰기 부분에서 많이 향상되었다. 한국어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국어수업에 참여하여 발음이 정확하다. 중급교재를 따라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아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남편이 아내가 한국에 먼저 온 언니들보다 한국어를 빨리 터득하여 잘하며 발음이 정확하다고 아내의 칭찬을 많이 함. 딸의 출산으로 부부금슬이 좋아지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열심히 살고 있다. 남편과 함께 부부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5	한국어가 잘되지 않았으나 친구 따라 닭가공 공장으로 취업하게 됨으로 수업을 7개월 후 도중에 중단함.	공장에 취업하여 베트남친정에 송금함으로써 가정 불화가 있었으나 남편교육을 통하여 베트남문화를 이해한 남편이 2년까지 양보하기로 함
6	한국어 수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조금씩 입이 열리고 의사소통도 조금은 가능해졌다, 한국어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참여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읽기나 쓰기에 향상을 보였다. 상반기수업보다 하반기에 적극적인 태도로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였다. 초급수준은 넘었으나 중급교재를 따라 하기에 약간 무리가 있다.	시부모님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가끔 어른들께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다. 집에서는 항상 일이 많으므로 유일하게 한국어 공부를 하러 와서 쉬고 자유롭고 편한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으며 독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한국어지도사와 상담을 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표 4) 계속

사례	한국어능력	가정생활적응력
7	임신하여 입덧을 하는 기간에 수업에 조금 소홀하였으나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츰 의사 표현을 할 줄 알며 한국어교육에 못나오는 날은 전화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진급을 하였으며 다문화사랑축제에서 동시를 낭송하여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다.	말을 출산하여 한국어 수업을 쉬고 있으나 가끔은 전화로 소식을 전해온다. 며느리의 산후조리기간에 이루어진 시어머니 교육에 시어머니가 참여하였고, 남편도 배우자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8	성실하고 꾸준한 한국어교육 참여로 기본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기쓰기를 통해 글 쓰는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바로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어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다. 중급반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신혼 초에 어려움을 극복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부부급슬이 좋으며 시어머니와도 화목하게 지내며 살고 있다. 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가족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9	아기를 임신하여 입덧을 하는 기간에 갖은 결석으로 인하여 한국어능력이 퇴보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지속적인 참여로 상대방의 안부도 물어올 줄 안다. 자신의 의사를 똑똑하게 전달할 줄 알며 일기쓰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중급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분가 한 후에도 주말에는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다. 남편의 도움으로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다문화사랑축제에서 하는 부채춤 연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제2회 행복 나눔 운동회에서 친정방문 티켓을 받았다.
10	성실하고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으로 점점 많은 향상을 보였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점점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정확한 발음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일기도 쓸 수 있게 되었다. 중급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원만한 성격으로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으며 가정에서도 시부모님과 남편과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노래에 소질이 있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여 결혼 이민자 노래 부르기 대회에 나가서 2등 상을 타왔다.
11	둘째아기를 임신하게 되어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여 하반기에는 한국어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에 교육에 지속적인 참여로 서서히 읽기의 발음도 좋아지고 있으며 쓰기에서도 많은 향상을 보였다. 말하는 능력도 향상되어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센터에서 생활을 하였으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상담지원으로 가족 상담을 통하여 다시 집으로 들어와 이혼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싫어하며 힘들어한다. 언제나 분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12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어공부에 참여하여 많은 발전이 있다. 초급과정을 마치고 중급과정으로 진급했으며 발음도 정확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하다. 질문도 자주하여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안다. 중급반으로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시청을 방문한 베트남사람을 위해 통역으로 활동함. 다문화사랑축제에서 영상편지를 읽으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호응도가 매우 좋으며 보건소 통역요원으로 추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13	한국어교사의 적극적인 태도로 지속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점점 듣기와 말하기에서 향상되고 있으며 (단어에서 문장으로)일기쓰기를 시작하였다.	분가 후 잘 적응하고 있으며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일을 도와주고 있다. 하우스에서 일을 많이 하여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며 매일 물리치료를 받아야 참을 수 있다고 한다. 하루 일하는 품삯으로 병원에 가므로 일하는 보람이 없다고 한다.

〈표 4〉 계속

사례	한국어능력	가정생활적응력
14	성실한 자세로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읽기, 말하기, 쓰기에서 현저한 발달을 보였다.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 있으며 꾸준한 일기쓰기를 통하여 편지쓰기대회에서 (시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써서 수상을 하였다. 중급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교육 후 보건소에서 통역을 맡아 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통역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예의가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살고 있으나 시누이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으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15	말하기와 듣기가 불편함이 없으므로 쓰기공부를 주로 하였다. 지속적인 일기쓰기를 통해 동사나 형용사 사용법을 알게 되었다.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으며 중급반에서 공부하는 중이다.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으나 센터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시어머니와 함께 참여 하고 있다. 아이들이 셋이나 되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밝고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에서도 모든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어와 요리실습, 한국어와 노래. 한국어와 작업 교육, 한국어와 문화체험 등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을 교육과정 동안 지속적인 관찰과 심층 면접으로 그들의 가정생활특성 및 가정생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어와 가정생활통합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효과를 점검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초기적응에서는 한국어 부족으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부부관계 및 고부갈등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문제, 자녀 양육,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교육 초기과정에서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몇 개의 단어와 10문장 이하를 알고 있었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된 결혼이민자는 대부분이 잘못 습득된 언어표현이 많고 쉽게 고쳐지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지

역의 사투리에 익숙해져 있어 표준어와 사투리를 구분하여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셋째, 열심히 교육받은 결혼이민자들은 6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일기를 쓸 수 있었으며 하반기까지 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가정생활상담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1년 이상의 한국어 및 가정생활교육을 통하여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상~하반기를 통해서 한국어교육과 가정생활교육을 동시에 받은 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를 빨리 깨우쳐 보다 효과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과 가정생활교육 내용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찾아가는 가정방문교육서비스와 더불어 찾아가는 거점형 집합교육(면단위), 센터로 나와서 받는 집합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맞게 탄

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어와 가정생활적응교육은 적어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교육 시 한국어강사가 친정어머니 같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결혼이민자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가정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와 시부모관계의 문제들로 가정생활에 부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난 사례들이 많이 있어 부부상담, 시부모상담, 자녀상담 등 가족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나이 40세 이상의 가족상담 능력을 가진 지도사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 고 문 헌】

- 1) 강승호(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경기가족·여성」 창간호, 80-86.
- 2) 경향뉴스(2008 1.13). www.khan.co.kr.
- 3)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8). 한국어초급. 경희대학교 출판부.
- 4)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네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 5)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6)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서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이주여성 인권센터.
- 7) 김지은(2007). 적응과 세력화의 경계에 선 “외국인 아내들”: 농촌지역의 베트남 결혼이민자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9) 박재규·이윤애(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 10) 박현정(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이민자실태보고. 광주여성의 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3-34.
- 11)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12) 양순미, 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13) 여성가족부(2005).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 여성가족부 가족통합팀.
- 14)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실태연구: 전라북도 임실군 일원 사례 보고서, 국립국어원.
- 15) 윤희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 16) 이순형, 문무경, 최연실, 이숙정, 정하나, 우현경(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방안. 연구 농림부.
- 17) 이윤애, 최근도(2007). 농어촌 결혼이민자가족주거환경개선 결과보고서. 전북발전연구원.
- 18) 조선경, 김은애, 박지영, 이향, 장용원, 조남민(2007).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사지침서. 여성가족부.
- 19) 채옥희, 홍달아기(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건강가정을 위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향상 교육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66-78.
- 20) 채옥희, 홍달아기, 김정훈, 이남주(2006).

- 국제결혼 가족의 가정생활적응전략. 한국 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21) 채옥희, 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22) 최금혜(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1), 219-244.
- 23) 한건수(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9(1), 195-24.
- 24)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유형, 국제 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 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엄자료.
- 25) 홍달아기, 채옥희(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733-744.
- 26)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투 고 일 : 2009년 3월 3일
  - 심 사 일 : 2009년 4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5월 19일